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가 쓴 책의 일부이다. 이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도 나는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선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나와 똑같은 신성(神性)을 부여받았으므로 본성상 나의 형제이다. 서로 간의 반목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 (중략) ...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섭리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불평하지 말고 신들에게 감사하라.

- ① 부동심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기 위해 이성을 발휘한다.
- ② 유일신의 계율에 따라 인류를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한다.
- ③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인식하고 스스로 욕구를 조절한다.
- ④ 모든 정념에 순응하여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를 탐구한다.
- ⑤ 공동체에 대한 의무보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우선시한다.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문을 나서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다스릴 때는 큰 제사를 모시듯 해야 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인(仁)을 실천하면 사람들의 원망이 없어진다.
 을: 문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일을 알고,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자연의 질서(天道)를 알 수 있다. 밖으로 나갈수록 참된 앎은 적어진다. 그래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며, 행하지 않아도 이룬다.

- ① 갑: 최상의 덕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兼愛] 것이다.
- ② 갑: 인의(仁義)는 타고난 본성이 상실되자 나타난 것이다.
- ③ 을: 겸허와 부쟁의 덕으로써 예악(禮樂)을 확립해야 한다.
- ④ 을: 무위의 정치를 통해 이름을 바로 세워야[正名] 한다.
- ⑤ 갑, 을: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도(道)를 따라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할 경우 또는 인민을 독단적인 권력의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럴 때 인민은 복종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하여 안전과 안정을 마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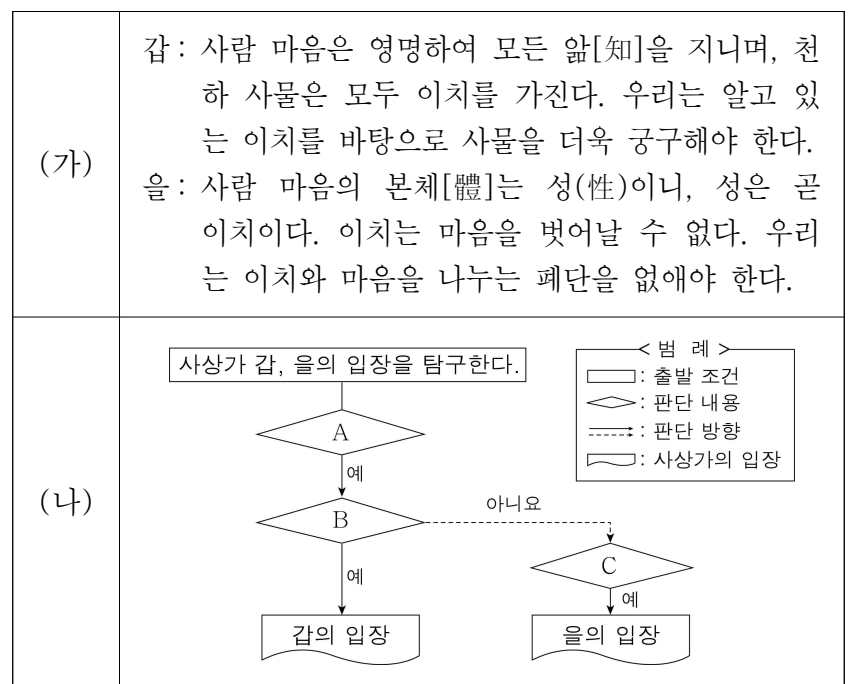
- ①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 ② 자연 상태는 적대적 악의와 폭력이 넘쳐나는 전쟁상태이다.
- ③ 인민의 동의로 성립된 입법부는 항구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 ④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다.
- ⑤ 입법부는 인민을 자의적으로 통치해도 되는 조직이다.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품성이 도덕적 선 또는 악이라 불리는 느낌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 품성이 우리의 개별적 이익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려될 때뿐이다.
 ○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달리는 말에 밟힐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즉시 달려가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공감 능력을 통해 그 사람이 직면할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 ① 이성과 감정은 모두 이타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이성은 감정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직접적 동기이다.
- ③ 품성적 덕인 공감 능력은 후천적으로만 형성될 수 있다.
- ④ 도덕적 선은 인간의 마음과는 독립하여 실제로 존재한다.
- ⑤ 도덕적 선은 이성에 의해 판단되고 감정에 의해 실천된다.

5.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 치지(致知)가 필요한가?
 ㄴ. B: 도덕적 앎은 반드시 도덕적 행함으로 이어지는가?
 ㄷ. B: 사람의 마음과 사물 모두에 이치가 존재하는가?
 ㄹ. C: 사람의 마음이 도덕적 행함을 주재(主宰)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적 존재[物]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귀하고 남은 천하다.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에 귀천은 없다.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크기 때문에 크다고 한다면 만물 중에 크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작기 때문에 작다고 한다면 만물 중에 작지 않은 것이 없다.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본다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겠는가?

- ①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② 자연의 이치에 따르기 위해 분별적 지혜를 쌓아야 한다.
- ③ 오감(五感)을 통한 앎은 참된 앎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④ 만물은 가치의 측면에서 평등함[萬物齊同]을 알아야 한다.
- ⑤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말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이것들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을: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 분배 영역에서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만이 적절하다.

- ① 갑: 불우한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다.
- ② 갑: 정의의 원칙은 권리 배분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근거이다.
- ③ 을: 복합 평등을 위해 분배 영역들 간 경계는 사라져야 한다.
- ④ 을: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하면 안 된다.
- ⑤ 갑, 을: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8.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작은 차이인데, 일반 백성은 이러한 차이를 버리지만 군자는 이러한 차이를 보존한다.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인의예지는 그의 마음[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을: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까닭은 분별[辨]이 있기 때문이다. 금수는 암수는 있으나 남녀의 분별은 없다. 선왕은 분별을 위해 예(禮)를 제정하였다. 예는 인위[僞]에서 생겨난 것이지 본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 ① 예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가?
- ② 인간의 본성은 교화를 거쳐야만 선해질 수 있는가?
- ③ 인간은 육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도 타고나는가?
- ④ 인간은 도덕적 옳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 ⑤ 군주는 인의의 도덕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9~10] 갑, 을, 병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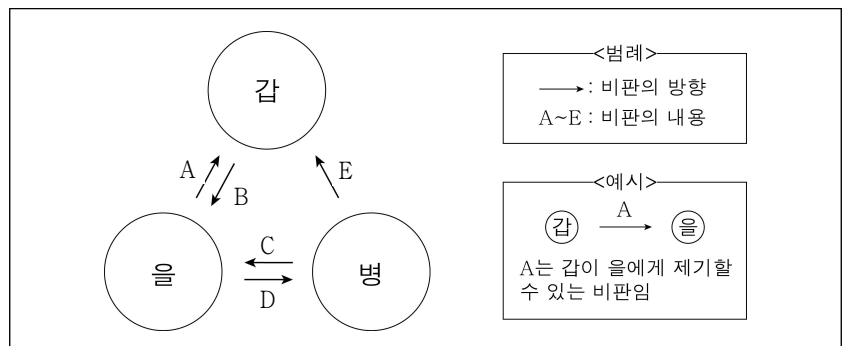
갑: 아름다움 자체는 아름다운 것들의 원형이다.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고 소멸해도 아름다움 자체는 어떤 변화도 겪지 않고 늘 그대로이다.

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는 본성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런 즐거움은 탁월성에 따르는 행위에서 발견되며 탁월성에는 지성적 탁월성과 품성적 탁월성, 두 종류가 있다.

병: 아름다움과 탁월성은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때만 가치를 지닌다. 이들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9.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지혜·용기·절제의 조화를 이룬 사람은 불행할 수 없다.
- ② B: 철학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③ C: 초월적인 좋음보다 현실에서의 좋음을 추구해야 한다.
- ④ D: 쾌락은 지나침이나 모자람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악이다.
- ⑤ E: 개인 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함이다.

10.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이는 덕에, 어떤 이는 쾌락에, 어떤 이는 자연을 따르는 데 최고선이 있다고 하며, 이들은 현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이것은 오만이다. 참된 행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것은 신국(神國)에서 실현되는 인간과 신 사이의 평화 속에서 가능하다.

- ① 보편으로서의 이데아는 어디에도 있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용기, 절제는 최고의 덕인 사랑의 다른 형태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참된 실재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④ 세계가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구분됨을 모르고 있다.
- ⑤ 신국은 철인 통치가 실현된 이상 국가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1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함은 양지(良知)에서 나왔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이 확연히 다른 바이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사람이 그를 선하다고 하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악하다고 하면 부끄러워한다.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성[嗜好]일 뿐이다.

- ① 사단은 마음이라 할 수 있지만 이치[理]도 덕도 아니다.
② 사단은 사덕이 내재해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이다.
③ 선행(善行)의 반복적 실천으로 자주지권을 형성할 수 있다.
④ 인간이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은 사단을 생성하는 바탕이다.
⑤ 수오(羞惡)의 마음은 의(義)라는 본성을 형성하는 시작이다.

12.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자본주의는 거대한 생산력을 지녔지만, 이 생산력을 발생시킨 주체인 노동자는 항상 빈곤해야 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권위주의 체제일 뿐이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 없이 실현될 수 없다.
(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순은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이다. 사회적 차원의 생산력은 높아졌지만 생산물은 소수에게 편중된다. 이러한 모순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없이 극복될 수 없다.

< 보기 >
ㄱ. (가): 일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허용될 수 있다.
ㄴ. (나):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킨다.
ㄷ. (나): 모든 계급의 연대를 통해 공산주의는 완성된다.
ㄹ. (가), (나): 자본주의는 인간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는 배려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나는 나의 삶과 내가 배려하는 상대방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완성된다.
을: 우리는 조직화된 활동 속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한다.

- ① 갑: 완전한 배려는 배려받는 사람의 반응 없이 이루어진다.
② 갑: 배려의 원천은 인격을 존중하라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다.
③ 을: 개인의 자유는 최고의 선이며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다.
④ 을: 덕성의 함양보다는 도덕 원리의 탐구가 중시되어야 한다.
⑤ 갑, 을: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나라에 사학(邪學)을 전파시킨 서양인들의 목적은 우리의 문화를 더럽히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다. 맹수와 홍수보다 해악이 큰 사학을 뿌리 뽑고, 의복과 먹을 것, 도구에서 양물(洋物)을 모두 찾아 없애야 한다.
을: 우리나라에 악질(惡疾)이 가득 차 백성이 편할 날이 없다.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천하는 망해 가는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할 계책은 어디에 있는가?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 보기 >
ㄱ. 고유 사상과 유불도(儒佛道)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ㄴ. 서구 문물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ㄷ. 외세에 맞서 봉건적 신분질서와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가?
ㄹ. 참된 도(道)를 밝히고 성(誠)과 경(敬)을 닦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 결과에 대한 애정에서 결정되지 않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에서 결정된다. 자기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숭고함을 없애므로 혐오스럽다.
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동기와 무관하다. 의무감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나온 행위라도 결과가 좋다면 그 행위는 옳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의 차원에서 행복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나)
[Venn diagram showing two overlapping circles labeled 갑 and 을. The left circle is labeled A, the right circle is labeled C, and the intersection is labeled B. A legend box indicates: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기 >
ㄱ. A: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익 희생은 인정된다.
ㄴ. B: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ㄷ. B: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ㄹ. C: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모든 실체와 공통으로 갖는 본성에 일치하는 성향을 갖는다. 이런 성향에 따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거나 이를 막는 것을 제거하는 일은 자연법에 속한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다.
 을: 인간의 본성은 분쟁을 야기한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한, 인간은 만인의 전쟁상태에 놓인다. 이때 이성은 평화를 추구하라는 제1의 자연법과 평화가 불가능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할 자연권을 찾아낸다.

- ① 갑은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적 성향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불의하지 않다고 본다.
- ④ 을은 모든 자연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연법을 다른 모든 법의 근거이자 대전제로 본다.

17. (가)의 갑은 근대 사상이자, 을은 현대 사상이자이다.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신은 만물의 본질과 존재의 내재적 원인이다. 인간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충분한 관념으로부터 사물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인간은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을: 신 앞에 홀로 서는 인간은 크나큰 노력을 하고, 크나큰 책임을 지면서 오로지 홀로 서려고 한다. 자신을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발견해야만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	_____ ㉠ _____. 그러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① 갑: 신과 합일하여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하라
- ② 갑: 지성을 계발하고 만물의 인과 관계를 이해하라
- ③ 을: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여 주관적 진리를 극복하라
- ④ 을: 신보다 자기 자신에 의지할 것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라
- ⑤ 갑, 을: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인격신의 은총을 갈구하라

18.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일심(一心)을 몰라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면 중생이고, 일심을 깨달아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면 부처이다. 돈오와 점수의 두 개의 문[兩門]은 성인이 닦아온 길이다.
 을: 일심과 두 개의 문[二門] 안에 일체의 법[法]이 포함되어 있다.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수하지도 않는다. 둘이 아니므로 곧 일심이다.

- ① 갑: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된 성품[佛性]을 직관해야 한다.
- ② 갑: 습기(習氣)는 돈오 이전과 이후 모두에 존재할 수 있다.
- ③ 을: 일심은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絕對不二] 것이다.
- ④ 을: 각 종파의 특수성을 없애고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
- ⑤ 갑, 을: 수행함에 있어 정(定)과 혜(慧)를 중시해야 한다.

19. 그림의 갑, 을은 한국 사상이자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이(理)는 하나이나 기(氣)를 타면 그 나뉘이 만 가지로 다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병은 같지 않으나 병 속의 공기는 한가지이듯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됩니다.
 이는 기를 주재하는 장수와 같고 기는 이의 주재를 받는 졸병과 같습니다. 성(性)은 이와 기로 나눌 수 있고, 사단과 칠정도 이와 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보 기 > —

ㄱ. 측은의 마음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정(情)임을 간과한다.
 ㄴ. 기쁨이나 슬픔에도 선(善)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ㄷ.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순선하게 됨을 간과한다.
 ㄹ. 이는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하는 까닭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갑, 을 사상이자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는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결사체이다. 인간은 본성상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이다. 국가의 성원이 될 수 없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을: 정부는 사회에서 가장 유익한 발명품이다. 정부로부터 얻는 이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 반감을 느낀다.

— < 보 기 > —

ㄱ. 갑: 정치적 의무의 유일한 근거는 공공재의 혜택이다.
 ㄴ. 갑: 국가는 최고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ㄷ. 을: 정치적 의무는 시민의 동의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ㄹ. 갑, 을: 국가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